

학회와의 특별한 인연 50년



제39대(2019년) 회장 이정국

어느덧 미생물·생명공학회가 1973년 3월 창립된 이후 5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생물·생명공학회는 우리나라의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학술 활동을 선도적으로 주도한 대표적 위상을 갖게 되었고, 이에 걸맞은 규모와 수준을 갖추게 성장해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학회 활동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동료와 후배 회원님의 노력 덕분입니다.

현재 미생물·생명공학은 방대한 생체 정보를 디지털 세계에 접목하고 이에 기반을 둔 기술을 바탕으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적용의 외연이 넓어지며 전문성은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이와 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학술 및 기술 분야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개하여 신기술 융합 학술 분야를 창출하고 이끄는 장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제적 학술대회 개최와 더불어, 학회의 학술·기술 발전의 또 다른 주된 방법은 학술지 발간입니다. 미생물·생명공학회는 SCI급 학술지인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JMB)와 SCOPUS 등재지인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Letters (MBL)를 출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 38대 회장 이신 장용근 교수님의 도움으로 기존의 학술지편집위원회를 JMB 편집위원회와 MBL 편집위원회로 분리해서 2019년부터 MBL의 편집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학술지의 편집이 분리되어 앞으로는 JMB와 MBL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유한 전문 학술지로 더욱 크게 발전해 나아가고 고급화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회장직을 수행하던 2019년에 사용 명칭의 일관성과 전통성에 논란이 되어왔던 학회상을 정비하였고 또한, 일부 학회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공로대상, 학술대상, 학술장려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도과학자상과 중견과학자상을 신설했습니다.

미생물·생명공학회가 “한국산업미생물학회”의 명칭으로 활동하던 1982년과 1987년 두 차례의 춘계 학술행사를 제주도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제주도에서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약 32년 만인 2019년에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을 제주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6월 23일~26일

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진행된 제46차 학술행사에 등록 인원 1,613명을 비롯한 총 1,800여 명이 참가하여 총 86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와 미국의 산업미생물·생명공학회(Society for Industrial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SIMB) 간의 학술교류 증진을 위한 MOU를 연장 체결하였으며, SIMB 회장인 Persephone Biome 社の Stephen Van Dien 박사의 특별 강연에 대한 답례로 2019년 7월 21일~24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SIMB 학술대회에 저와 김응수 간사장이 함께 참가하여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를 하여 실질적인 교류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1월 14일~16일에는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동계심포지엄을 “Four Sights into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Oversight, Hindsight, Foresight, and Insight”라는 주제로 학술분과 위원장들을 연사로 모셔 각 학술 분야에 대한 과거와 현재 및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통해 주된 학술 분야의 전반적 전개 상황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고 2월 14일~15일에는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영남지부 학술대회가 열렸으며 8월 22일~23일에는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호남·제주지부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우수한 학술 결과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두 지부 학술대회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많은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가 있어 두 지부의 지속적 학술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생물·생명공학회가 50년의 역사를 갖는 동안, 비록 2019년 한 해이지만 위와 같이 학술행사 및 관련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와 같이 수고해주신 이사진과 최선을 다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김응수 간사장을 비롯한 간사진, 그리고, 학회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같이 일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 아끼는 마음은 우리 학회 회원 간의 값진 전통이자 무형의 큰 재산입니다. 이런 상호 간의 신뢰가 있었기에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학회는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앞으로도 미생물·생명공학회가 우리나라의 미생물학과 생명공학 분야의 학술 및 기술 발전을 계속 주도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앞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학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시는 여러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